

# "불교 가르침에 대한 신념"

# 20년 저술작업의 원동력

저자가 말하는 나의 책 이야기- <법화경과 신약성서> 저자인희식



불문학을 공부하려 프랑스에 간 나는 중세기불문학을 연구하다 <조세파트와 바라들>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 내용이 부처님의 생애와 너무나 같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왕자로서 어려서부터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출가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성인이다. 그 밖의 성자 이야기도 불교의 내용을 많이 따 온 것에 놀랐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했기에 부처님의 생애는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성인의 삶으로 묘사될 것이다. 후에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의 절 탁

“신약 성서의 뿌리는 불경” 규명  
법화경, 서양 뉴스토 학파에 영향

타바이에 갔을 때 예수의 제자 토마스 가 쓴 불교 논문을 보고 또다시 놀랐다. 1960년대 초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 온 직후 전라도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 어느 사찰 터에 다 들어가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성인이다. 그 밖의 성자 이야기도 불교의 내용을 많이 따 온 것에 놀랐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했기에 부처님의 생애는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성인의 삶으로 묘사될 것이다. 후에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의 절 탁

었다. 그러나 1980년대 극성스러운 종교인들에 의해 불상과 단군상이 마구 파괴될 무렵, 나의 <법화경과 신약성서>는 예수가 부처님의 제자였음을 밝히는 저서라는 측면에서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자료적 뒷받침이 충분치 못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독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짐으로 지고 있었다. 그 후 나는 20여 년 동안 유럽 미국 일본 등 각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기독교의 뿌리가 불교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최근 완성판으로 출간한 <법화경과 신약성서>는 필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미를 부여 하고 싶다. 우선, 성경(신약성서)의 내용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여러 불경에서 따 온 것임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법화경>의 ‘견보탑품’에서 ‘여래수랑품’에 이르는 진리는 현대철 단과학을 능가하는 것임을 여러 실례를

을 통해 밝혀야 했다. 세 번째로는 <법화경> 가르침의 진수가 서양의 뉴스토 학파에 영향을 주어 서양인으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원동력을 얻어 서양을 발전시킨 점을 듣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저비로운 사상과 초월적인 지혜가 자연 파괴로 시달리고 전쟁을 일삼는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나의 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불교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더불어 번영하고 행복하게 되는 가르침이다. 이에 대한 나의 신념과 사명감이 <법화경과 신약성서>를 20년 넘는 기간동안 쓰게 한 원동력이다.



## 여름에 떠나는 산사 체험 전국 25개 사찰 프로그램 수록



절에서 놀자, 템플스테이  
유철상 지음  
랜덤하우스 코리아 펴냄 | 1만2000원

참선, 예불, 명상, 산행, 발우공양, 다도, 선무도, 트레킹... 외국인들에게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국내인들에게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산문을 개방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템플스테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산사 생활의 노련자이들을 단기간에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갈라톤 서드다. 특히 심오한 체험을 이루는 여름철,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 숙박하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더욱 인기다. 이 책은 템플스테이 운영 중인 전국 25개 사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006년 5월 출간된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의 개정판이다. 초판의 21개 사찰 외에 용문사, 전등사, 봉은사, 송광사의 템플스테이를 추가했다. 사찰 정보를 예제로 낱기도 했다. 예절과 참선법, 발우공양법, 연등 제작, 사찰의 구조 등 사찰문화를 설명, 불교문화가 생소한 이들을 위한 부록처럼 만들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저자가 추천하는 여름 산사 세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마곡사', '미황사', '해인사'이다. 마곡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반추해 보는 '자비명상템플스테이' 때문. 땅 끝에 있는 미황사에서 다도회에 시선을 두면 무한한 사색에 빠져 들게 만들며,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경경 체험과 백련암 등 산내 암자 순례가 참가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게 저자의 사족이다.

김주일 기자

## 산중에서 누리는 소박한 일상



왜 산중에서 사나고 묻거든  
정찬주 지음  
비채퍼냄 | 1만원

솔바람으로 시비에 집착하는 귀를 써어 불(佛)을 이룬다는 뜻을 담은 집 이불재(耳佛齋). 소설가 정찬주씨가 남도 산중에서 6년째 글쓰고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집 이름이다. 여기에 담긴 것처럼 그는 도시 생활의 속도에 휘둘리며 잃어버린 진정한 자신의 모습,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산중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송두리째 자기 것이 되는 삶을 꿈꾼다. 그래서 선거에서 전제하는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죽어라'라는 말을 늘 마음에 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생의 시간에 온몸을 바치려면 누구라도 외로워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농부처럼 갑자기 콩 농사를 지으면서 혹은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워먹으면서 혹은 다람쥐나 뱀, 붓꽃, 원주리꽃 등 자연과 조우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나를 나름대로 명상하고 사색한다. 그러한 결과물들을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자의 산중 소박한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기름 닳은 저녁 시를 쓰다 보면 그리움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출가한 중생에게 왜 그리움이라고 누군가가 내게 의문을 던진다면 나는 어쩌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그리움'이란 딱히 '이것이다' 말하지 못하는 까닭이니까요."  
- <사랑이 죄라면 중에서>

## 가슴 저미는 '그리움' 담은 스님의 시화집



가슴 저미지 않는 그리움은 없다 지원 스님 지음 | 동승동 펴냄 | 9500원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문수사 주지)스님이 자작시에 시작(詩)메모 형식의 해설을 붙여 놓은 책 <가슴 저미지 않는 그리움은 없다>를 펴냈다. 인간적 고뇌와 그리움을 감성적 필체로 드러내며 깨달음의 세계를 향한 선승의 구도 행을 담은 글들이 통찰스런 선적(禪的)인 관화와 함께 실렸다.

이 책은 시집도, 산문집도 아니다. 그렇다고 관화집도 아니다. 굳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와 산문, 관화가 어울려 빛이 난 한 권의 시화집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지원 스님의 오랜 인간적 고뇌가 문장마다 섬세히 녹아 흐른다. 물질문명이 판치는 작금의 현실에 한 산승(山僧)이 던지는 무량하고 고요한 선의 세계는 자식처럼 우리를 산 속으로 끌어당긴다.

김주일 기자

■바로잡습니다  
633호 <지경> 기사 중 '풀어쓴 이'는 원순 스님, '떠난 곳'은 법공암으로 바로 잡습니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혜 편저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움의 숲
3	절을 가차게 절하는 법	청연	붓다의 마을
4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5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불광
6	바람 속 이야기	동화사편찬실	운주사
7	인연법과 마음공부	해국	효림
8	스님, 마음이 불만족해요	법륜	정토
9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10	구법	정운	솔바람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간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운선사 심법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 사: 2007년 8월2일(목)~8월5일(일)  
회 비: 60,000원  
문의처: 02-597-2460 / 02-522-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양촌 법계사 신증명화(동)

양촌 법계사 삼세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금 → 원만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 불국정사 수행 건강음식

구인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지 18년이 된 불자입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었으나, 불자가 되고 난 뒤, 기도 방식대로 관음 정진을 하였습니니다. 정진 중,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나타나시어,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니다. 그 방법대로 음식을 만들고, 식생활을 개선한 후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음식업)에서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년전, 대조사님께서 다시한번 나타나시어 약초를 일러주시며 그 약초로 차를 달여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부터, 나의 몸은 20~30대 때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좋은 차로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대중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안좋은 분께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뜻을 깨달아 불국정사를 이루어 부처님법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께 알려드립니다. 불국정사에 오셔서 수행 정진과 좋은 음식, 좋은 차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 금강좌 합장 -

서울 종로구 창성동 150-3 불국정사  
전화 02)736-3091, 735-3268  
011-9762-7949  
팩스 02)3448-0661